

국회 정상화 했지만 협의는 험로

특검 규모·활동시기·대상·검사 추천 등 사안별 입장차

여야가 가깝스로 18일 드루킹 특검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최종 세부합의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특검법안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의 대통령 선거 댓글 조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선거' 등의 표현이 사라졌다. 여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대신 한국당 등은 특검법안 처리 시기를 18일로 앞당겼다.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대한변호사 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 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이 반대해온 '특검 후보자 추천 시 여당의 거부권 행사'는 배제했지만, 대한변협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이 포함됐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이처럼 여야는 특검법 처리 시점과 특검 추천 방식 등에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만 특검법의 규모와 특검 활동 시기 등 구체적 특검 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논의의 여지가 있다. 특히 수사 대상에 '감찰·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항'이나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역할'과 같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강조했던 부분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향후에 논

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 앞에 적절한 수식어를 붙여 수사 대상을 더욱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5일 "인지"라는 개념은 넓게 해석하면 자칫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듯한ニュ앙스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에 국한한 데다 이 조항은 특검법안에 늘 따라붙는다는 점에서 손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한국당은 수사 대상과 관련, 김경수 전 의원의 개입 의혹이나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논란 등 무엇도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드루킹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 있는 사람조차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수사단 규모 역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법안 처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야 3당이 구체적 특검 추천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6·13 선거 현장

도지사·교육감·구청장·군수·구의원 후보

김영록,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면담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14일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를 만나 남북 농업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시 서구 쌍촌동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을 찾아 김 대주교와 1시간여 동안 산책을 하며 얘기를 나눴다. 그는 "도지사 되면 남북 평화시대를 맞아 북한과의 농업 관련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뜻을 밝혔다.

김 대주교는 "천주교는 남북 경제협력에서도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면서 "농어업 교류협력사업 관련 전남도와 협의하고 또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 대주교는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북한에 지원하는 등 남북협력기금 활용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인 "법사회적 스승 존경 풍토 조성"



문인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5일 "우리 사회의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믿음을 가지고 교육청, 학교 등 교육 관계기관과 함께 법사회적인 스승 존경 풍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스승과 책임자가 제자와 대중 위에 군림하려 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한 단체를 책임지는 사람은 항상 사회모범이 되고자 하는 스승의 마음을 가슴에 받아 늘 주문을 삼기는 자세로 스스로를 살피고 또 살피야 하며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용두 "곡성 완전 의무교육 실현"



박용두 정의당 곡성군수 후보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아이·부모·교사·지역 모두 행복한 곡성교육' 정책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작은 군의 특성을 살려 곡성의 모든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고, 학생복지에 맞춤형으로 늘려 미래가 희망적인 곡성을 만들겠다"며 "중·고등학생 교복과 고교 무상 급식을 시작으로 점차 완전 의무교육을 곡성에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곡성교육 조례 제정 ▲맞춤형 진로진학 플랫폼 구축 ▲통학 단축, 학교폭력 예방, 응급의료 지원 등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의무교육 확대 ▲고3 장학금 지급 ▲장학재단 설립 및 100억 기금 조성 등을 공약했다.

고석규 "힐링프로그램 운영 행복한 학교 앞장"



고석규(61·전 목포대총장)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교육부 통계를 보면, 매년 교권 침해사태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각적인 힐링 프로그램이나 복지담당기 관을 설치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구체적 계획으로 교직원 힐링센터를 건립하고 ▲교직원 치유성 프로그램 ▲교직원 주말 힐링캠프 ▲찾아가는 교직원 힐링캠프 ▲교직원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교직원 힐링센터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국고 보조와 자체 재원 등으로 300여 명의 설립예산을 확보하겠다"면서 "교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수, 마늘·양파 가격 안정대책 마련 촉구



이성수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15일 "정부와 전남도는 마늘·양파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3월부터 본격 출하된 조생종 양파 가격이 전년 대비 45% 하락, 농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산지폐기에 나섰으나 정부는 가격안정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수입산 양파 508t을 시장에 방출하는 폭거를 저행했다"며 "정부 예측 잘못은 수급 조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파·마늘 주산지인 전남이 정부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남도정 또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마늘·양파 생산자 대표와 공공수급제 실시 연구계획을 구성, 공공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복 광양시장 재선 도전 선언



정현복 광양시장이 15일 "4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행정달인, 예산전문가, 깨끗한 정현복에게 다시 한 번 힘을 실어달라"며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무소속인 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년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4년 이내에 반드시 해내겠다"며 "다음 임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광양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1조원 시대 개막과 부채 조기상환, 160개 기업 유치,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립미술관·예술관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 시장은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중마·금호권역 해병공원 조성, 섬진강 뱃길 복원, 전기자동차·드론 산업 유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유두석 장성군수 재선 도전...무소속 출마



무소속 유두석 장성군수가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섰다.

유 예비후보는 최근 "장성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며 장성군수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무소속 출마에 대해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지역을 살찌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인물인지 소속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황룡강 일원 국가정원 지정, 국립 심혈관센터 완공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치유도시 구축, 고려시멘트 공장 및 석회석 광산 가동 중단,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지원, 등학교시 100원 택시 확대 운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대현 "공동주택 개보수 보조금 증액"



박대현 광주 동구의회의장이 지방선거 광주시의원 동구 제2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박 후보는 "수많은 지역 주민들의 추천과 권유로 지난 3일 동구의회의 의정직을 사퇴하고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며 "넓은 공동주택에 지급되는 개보수 보조금을 현재보다 더 증액하고,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늘려 중산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정책을 개발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철저히 해소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푸른길 공원이나 체육공원 등에 맹종출입을 금지하는 정책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욱·오광록·김홍록 기자 jwpark@kwangju.co.kr



웃음꽃 핀 고위당정협의회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팔장을 끼고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연합뉴스

야권 순천시장 후보 단일화 추진...여야 1대 1 대결

이창용·손훈모·양효석·윤병철 25일 100% 여론조사 선출

순천시장 선거가 급변하고 있다. 무소속과 야권 후보들이 전격 단일화를 선언, 여권 후보에 맞대결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15일 순천시장 예비후보 단일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평화당 이창용 후보와 무소속 손훈모·양효석·윤병철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오후 순천시의회에서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대 여당

후보의 전횡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토대 위에서 순천시민의 후보선택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일화 배경에 대해 "순천의 미래를 위해 정책이나 공약을 검토해 일꾼을 뽑아야 할 선거가 파벌로 나뉘어 계파와 대립정리라는 전형적인 패거리 정치로 얼룩졌다"면서 "각기 다른 이상과 정치의 길을 걸어왔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

해 전면 단일화에 합의해 순천 통합 정치의 새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단일화 추진 과정은 사회 각층으로 구성된 단일화추진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후보들이 3명씩 추천해 12명으로 구성된 단일화추진위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 2곳을 선정해 조사를 벌인다. 조사기관당 1000명씩 모두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오는 25일 1순위자를 단일후보로 확정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심약번호 : 21719239

010-3598-7080

"공장부지 매매" (급 매)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대지 14,916.9㎡, 건물 998㎡(H비 구조)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매매가 30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감정가 40%이하 급 모텔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공가능

감정가 30%이하 급 모텔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